

‘비교사회주의적 접근’ 과 북한 연구의 결합

최 성(1997. 2), 「북한정치사」·「북한학개론」, 풀빛

진화관 / 동국대 북한학과 강사, 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치 근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90년대 이전의 남북 ‘대결 구도’에서 발생한 북한에 대한 적대성 일변도의 관심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즉, 대결의 측면에서라기 보다는 북한 사회의 급박한 가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학계가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채워주는 역할이 충분치 못하였다. 매년 많은 북한 관련 연구 논문들이 저널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행본 발간은 매우 척박한 실정이다. 최근 2~3년간 북한 관련 서적 및 교재용 저서들이 출간되어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서적들은 여러 논자들이 저술한 논문을 편집하여 묶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책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일관된 논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출간된 최 성 박사의 두 권의 저서, 「북한정치사: 김정일과 북한의 권력

엘리트」와 「북한학개론: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체제」는 최근 북한 사회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서가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황장엽 비서는 망명 과정에서 오늘의 북한 사회를 ‘봉건 사회’라 부르면서 김정일·김정일 정권의 개인 숭배와 부자 세습을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북한 사회의 봉건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최 성 박사는 이에 대해 첫째, 정치적으로 친인척 중심의 ‘봉건적’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 엘리트를 구성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이데올로기적으로 수령론과 후계자론 그리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통하여 봉건적 충성과 개인 숭배를 강요하는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문화적으로 전통적 유교 사상인 충효 사상과 혁명 전통, 그리고 봉건적 의리 등의 강조를 통해 봉건적 유교 사상을 사회주의적 틀에 결합하였다는 점 등이다.

물론, 저자의 이런 평가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북한 학계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의 두 권의 책이 북한학 연구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필자 나름대로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서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의 태동과정, 그리고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과정을 구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권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붕괴 과정과 연결시켜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북한 권력 엘리트의 내부 투쟁 등 사회주의권 내부의 현실과 실증적으로 비교되면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남북한 체제비교론적' 시각에서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정권의 형성, 변화 과정은 남한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진영과의 대결이라는 분단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전시공산주의적 위기관리체제'라는 독특한 형태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 '수령체계의 형성과 변질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점이다. 소위 '수령·당·대중'이라는 '삼위일체'를 내세우는 북한의 수령체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 숭배와 부자 세습이라는 '봉건적 사회주의'를 태동시킨 원인

과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몇가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우선, 각 장마다 광범위한 시대를 포괄하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다소 약화된 부분들이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본문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한 서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치밀한 자료 분석이 눈에 띄는 반면,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권의 저서는 북한 관련 저술에 하나의 자극제로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과거 우리의 북한 연구가 비교사회주의적인 분석에서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점차 보완되면서 더욱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統**